

정쟁 소용돌이에 맞서다 아버지 손에 목숨 잃어

48 추존왕 장조(사도세자)-용릉



용릉 앞에 설치한 현대식 대리인 원대황고(사신 위). 회성행궁에는 모함으로 간해죽은 사도세자의 뒤주가 재현돼 있다.

“네가 만약 자진하면 조선국 세자의 이름은 잃지 않을 것이다. 어서 자진하라!”

세자는 이마를 땅바닥에 찔으며 영조를 바라보며 애원했다.

“전하! 전하!”
영조의 벌건 얼굴에는 노기가 훤히 흐르고 세자의 얼굴에는 피눈물이 밤백이다.

“내가 죽으면 300년 종묘사직이 망하고, 네놈이 죽으면 사직이 보존될 것이다. 너 하나 잃지 않고 종사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어서 자진하라!”

윤5월, 한여름이다. 임금의 노기(怒氣) 앞에 바람과 초목도 숨을 죽인다. 햇빛을 가려줄 구름마저 세자의 편이 아닌 듯 종적을 감추었다. 세자를 감싸줄 이는 아무도 없다. 피눈물에 젖은 적삼만이 그를 감싸고 있다.

“아버지! 군왕은 세상의 동서남북, 전후좌우이십니다. 전하 앞에서 차마 흉측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밖에 나가서 자진토록 해주소서.”

“죽으려는 놈이 무슨 말이 그리 많냐?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닐 때도 그리 말이 많았느냐? 어서 자진하라!”

“전하께서 칼로 내리친다 해도 신은 칼끝에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죽기를 청합니다. 다만 흉한 꼴을 전하게 보이고 싶지 않을 따름이옵니다.”

영조는 섬돌 아래로 내려오며 소리쳤다.

“저놈, 저놈, 말하는 걸 보라. 흉측하기 짝이 없구나. 어서 자진하라.”

영조의 노기는 누그러질 김새를 보이지 않는다. 땅바닥에 팽개쳐진 젖은 빨래처럼 얼뜨려 있던 세자는 허리를 풀어 목을 맺다. 그러자 시강원 관관들이 달려와 매듭을 풀고 부축하며 의관을 부른다. 의관이 청심환을 물에 타서 입에 떠 넣었으나 세자는 계속 뱉어낸다. 영조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자라들이 저러니까 저 흉악무도한 놈이 믿고 날 뛰는구나. 모두 파직시켜라!”

이때 열 살 된 세손(정조)이 살벌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휘령전 마당으로 황급히 뛰어 들어왔다. 세손은 아버지 사도세자처럼 관과 도포를 벗어 던지고 세자 뒤에 얼뜨려 울부짖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비를 살려주소서.”

“누가 세손을 데려왔느냐? 썩 데리고 나가라!”

발버둥치는 세손을 벌근직 감수정이 안고 나간다. 영조는 창처럼 시퍼런 분노를 이기지 못해 고함을 지른다. 이놈, 어서, 어서 자결하라. 세자가 바닥에 널브러진 용포를 찢어 다시 목을 매니 강관들이 또 풀어주었다.

이 때 네 명의 내관이 휘령전 쪽문으로 큰 깨를 들고 들어온다. 풀 가운데 큰 깨 놓였다.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 바로 그 뒤주다.

“속히 그 속에 들어가라.”

이미 기진맥진한 세자가 엉금엉금 기어 뒤주를 잡아 시강원의 강관들이 울면서 민망하며 깨 밑에 엎드린다. 영조가 다시 고함을 지른다.

“저것들도 모두 역적이다. 당장 파직한다. 모두



죽어서도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정치각을 비켜 세웠다.

장인이 직접 사도세자 죽음을 위한 '뒤주' 마련 부인 혜경궁 홍씨조차 친정의 딸 역할에만 충실

끌고 나가라.”

어머내는 농담이 없다. 발살과 동시에 시한만 있을 뿐이다. 그들은 모두 끌려 나갔다. 세자는 흙투성이가 된 옷자락을 추스르며 두 손으로 뒤주의 모서리를 잡고 힘겹게 일어선다. 처연한 눈빛으로 영조를 올려다본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절규한다.

“아버님, 아버지! 소자를 살려주소서!”

참으로 오랜만에 부왕을 아버지라 불렀다. 이 말은 끝내 이승에서 아버지의 눈빛을 바라보며 외친 마지막 말이 되고 말았다. 이들의 절규에 대해 서늘한 아버지의 대답이 돌아왔다.

“속히 뒤주 안으로 들어가라.”

번복은 있을지언정 헛말이 없는 것이 어명이다. 마침내 세자는 뒤주 속에 들어갔다. 영조는 섬돌 아래로 내려와 직접 푸경을 타고 자물쇠를 잠갔다. 긴 판자를 가져오라하여 뒤주 위에 덧대어 못을 박고 밧줄로 뒤주를 봉했다. 뒤주 안에서 울부짖는 세자의 목소리가 영조에게는 들리지 않는다. 영조의 눈빛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다. 새끼를 잃은 맹수가 발광하는 눈빛 같았다. 이날이 1762년(영조38) 윤5월

13일이다. 무심한 햇살은 밀폐된 뒤주 위에 사정없이 내리 쬐인다.

조정 상황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세자에 대한 구명은 찻잔 속에 태풍일 뿐이다. 8월 후, 영조 38년 윤5월 21일, 좁은 뒤주 속에서 발버둥조차 치지 못한 채 세자는 숨을 거두었다. 정쟁의 소용돌이에 은 몸으로 항거하다 스물여덟의 생을 마감했다.

세자가 죽은 바로 그날, 영조는 ‘사도세자(思悼世子)’라는 시호를 내렸다. 생각(思), 슬퍼할 도(悼)! 영조가 직접 지은 것이다. 세자가 뒤주 속에서 사그라져가는 목소리로 살려주기를 애원하고 있을 때, 영조는 세자의 목숨이 아니라 세자의 명예만 살려주기로 작정하고 있었다. 세자가 죽은 직후 영조는 이렇게 말했다.

“과인은 미물도 불쌍히 여겨 부나비가 등잔으로 달려들면 손을 휘저어 내뱉고 길바닥에 개미가 지나 가면 밟지 않고 건너갔다.”

미물의 불살생(不殺生) 계율에는 충실했으나, 아들들을 죽인 아버리는 낙인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불같은 성격의 태종도 말쑥꾸러기 세자 양녕대군을 죽이지는 않았다. 스물다섯 살에 세자 자리에

서 내뿜긴 양녕은 비록 유배생활을 했으나 노년에는 왕실의 어른 대접을 받으며 69세까지 장수했다. 사도세자의 장례는 두 달 후인 7월 23일에 치러졌다. 장지는 양주 매봉산으로 정해졌다.

말이들 효장세자가 10세에 죽고 16년간 아들이 없어 애태우던 영조가, 마흔 둘에 얻은 자식이 사도세자다. 머뭇거리 이유가 없어 두 살 때 세자에 책봉됐다. 영조의 기대가 컸고 세자는 기대를 배반하지 않았다. 세 살 때 부왕과 대신들 앞에서 <효경>을 외웠고, 일곱 살 때 <동몽선습>을 독파했다. 서예에 조예가 깊어 수시로 문자를 쓰고 직접 지은 시를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열 살 때 흥봉환의 딸 해린 홍씨와 가례를 올렸다.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었다. 사도세자 죽음의 향연에 등장하는 핵심 소품인 뒤주를 제안하고 준비한 이가 세자의 장인 흥봉환이다. 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죄목은 세 가지다. 의대증이 도져 옷시중을 드는 공녀를 때려죽이고, 안암동에 있던 여승을 세자궁으로 불러들이고, 왕의 허락 없이 한 달 동안 관서지방을 유람하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 정도 죄목이면 꾸중, 근신, 심하면 폐세자 등의 벌이 합당하다. 그의 주변에 그를 도와주는 세력이 너무 없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듯이 비탄하는 목소리만 자욱했다. 부인 혜경궁 홍씨도 세자의 편이 아니었다. 친정의 충실한 딸이었으나 지아비의 애뜻한 지어미는 아니었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현(사진작가)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68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아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예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성, 관음시식, 다비시 등
작법반 (1년)	요집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8년 8월 27일까지 ◆ 개강일시 : 2008년 8월 28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림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친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 교육일 : 7월 28일 월요일만 • 교육시간 : 오후 1시

▶ 교육기간 : 6주(24시간) ▶ 모집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비용 : 6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아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략 합장 -

(사)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 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